

‘호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광주·전남 ‘맞손’

시·도, 공동추진위 출범...입법·지정 전략 추진 첨단의료기기·백신·면역 연계 융복합모델 제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호남권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의 제3 전략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산업과 기반시설의 통합 효과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수도권 중심의 바이오헬스 산업 구조를 다극화하는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입법 기반 마련과 정부 지정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는 광주의 첨단 의료기기 산업과 전남 화순의 백신·면역 산업을 연계한 기능 중심 모델이 핵심이다.

단지 내에는 시제품 제작과 실증, 입

상시험, 인허가,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공동추진위원회는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 병원장과 연구기관장, 기업 대표 등 총 13명(공동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는 산·학·병·연 주요 인사 40여명이 참석해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양 시·도는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 근거를 담은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규 대규모 건설 중심이 아닌 기존 기반시설을 고도화하는 ‘저비용·강소형 바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입법 기반 마련과 정부 지정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광주시

이오헬스복합단지 모델’을 제시해 국가 지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실행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입

상, 인허가,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기반으로 백신·면역·신약 분야의 연구·생산 역

용복합 바이오헬스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협력 선언을 넘어 입법과 정부 지정을 목표로 한 실

행 단계의 시작”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매일 얼음 1000개’...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출시

삼성전자, 하루 8kg 강력한 제빙 성능·저장 용량 지원 맞춤 살균 기능·82종 유해물질 제거...국내 최대 수준

삼성전자가 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에 인공지능(AI) 기반 사용자 맞춤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하루에 최대 약 1000개의 얼음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무게로 8kg에 달한다. 약 100개의 얼음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넉넉한 용량도 갖췄다.

또 82종의 유해물질 제거 능력과 AI 맞춤 살균 기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위생 수준을 제공한다.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는 미국국가 표준협회(ANSI)가 공식 승인한 정수기·음용수 실험 기관인 NSF 인터내셔널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4단계 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4단계 필터 시스템’은 머리카락 두께보다 1000배 가는 초정밀 필터가 포함되어 있어, 미세플라스틱부터 납·수은·크롬 등 유해 중금속, 마이크로시스틴 등 총 82종의 유해물질을 걸러낸다. 이는 국내에 출시된 카운터탑 정수기 중 최대 수준이다.

신제품에는 직수관·아이스룸·아이스 트레이를 전기분해 살균하는 ‘AI 맞춤 살균’ 기능이 적용됐다.

직수관은 3일, 아이스룸과 아이스 트레이는 30일 주기로 살균되며, 이를 통해 황

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리스테리아, 녹농균, 폐렴간균이 99.9% 제거된다.

특히 사용자의 음수 패턴을 학습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살균하기 때문에 기다림없이 편리하게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얼음 토출부에는 ‘UV 살균’ 기능이 적용돼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리스테리아, 녹농균, 폐렴간균을 99.9% 살균해 청결하게 관리한다.

이외에 이번 신제품은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지원해 사용자가 음성 명령만으로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신제품에는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보이스 ID’가 적용돼 각 구성원이 사전에 설정한 출수량과 모드에 맞춰 자동으로 물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스마트싱스나 제품 스크린에

서 출수량을 50~1000ml 내에서 10ml 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온도 역시 5도 단위로 최고 90도까지 설정할 수 있다.

또 커피 브루잉, 38종의 라면 레시피 등 자주 사용하는 출수 조건을 최대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제품 전면의 스크린에서는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타이머 설정도 가능하다. 특히 빅스비를 통해 음성으로 명령할 수 있어, 요리 중 간편하게 타이머를 설정 및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문중승 부사장은 “이번 신제품은 압도적인 제빙 성능을 중심으로 위생, 사용자 맞춤 AI 기능, 편의성까지 강화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신제품은 사틴 베이지·사틴 그레이지·습스톤 차콜의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수량은 239만 원이다.

정수기 기자 sky@gwangnam.co.kr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삼성전자, 갤럭시 구독 서비스 대폭 강화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 출시...3년형 가입 기간 추가

삼성전자가 기기 분실·파손 시 이용자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유료 서비스 혜택을 더 강화했다. 분실·파손 보상 뿐 아니라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발생 시에도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해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고객을 위해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강화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 가입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하는 갤럭시 S 시리즈 자급제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부터 가능하다.

지난해 1월 출시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사용하던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 폰 파손+’ 제공, 모바일 액세서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플래그십 자급제 모델을 구매해 고객 5명 중 1명이 가입하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혜택을 더욱 업그레이드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1·2·3년형 먼저 기존에 1년 사용 후 반납 시 삼성닷컴 기준가의 50%, 2년 사용 후 반납 시 기준가의 40%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던 가입 기간에 3년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3년형에 가입한 고객에게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분실·파손’ 상품을 36개월간 지원한다. 또, 3년 사용 후 반납하는 고객에게는 삼성닷컴 기준가의 25% 잔존가를 보장한다.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분실·파손’은 가입 기간 동안 분실 보상, 파손 보상, 무상 수리 서비스, 배터리 교체 서비스, 방문 수리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로 가입할 수 있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1년형과 2년형의 월 구독료는 6900원이며, 3년형은 8900원이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1·2·3년형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피싱·스미싱·해킹·파밍 등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발생 시 최대 300만원, 인터넷 적거래 또는 소량물 사기 피해 발생 시 최대 50만원의 보상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정수기 기자 sky@gwangnam.co.kr

공정위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뿌리 뽑는다

설탕·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4개 업체...전방위 의혹 조사 업체들 줄줄이 ‘가격 인하’ 결정...업체 “물가 안정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칼집이 가격 담합으로 서민 경제를 괴란했던 설탕, 밀가루 등 ‘국민 생활필수품’ 제조업체에 이어 전분 및 당류 업체로 향했다.

공정위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업체들은 일제히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전분당 제품 제조기업의 담합 의혹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다.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B2C) 전분당 제품의 가격을 최대 5% 내린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엽소용(B2B) 전분당 가격 3~5% 인하를 결정했다. 사조그룹의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 사조CPK는 이날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를 결정했다.

품목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전분, 물엿, 과당 등이며, 실수요처·대리점·가공업간거래(B2B)·소비자용(B2C) 등

모든 유통 경로에 적용된다.

앞서 대상도 지난 13일 정정원 올리고당, 사과올리고당, 요리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 3종과 청정원 물엿 등 소비자가간거래(B2C) 제품 가격을 각각 5% 내렸다.

또 기업간거래(B2B) 제품 가격도 평균 3~5% 낮출 예정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조원가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당을 비롯해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 담합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설탕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정을 내리고, 4083억원(잠정)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밀가루 담합 사건을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는 CJ제일제당, 대한제당,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타 등 7개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또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봤다.

최근 공정위는 제분 업체에 검찰의 공소장적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이에 관련 업체들은 연이어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렸고, 삼양사도 B2C 및 B2B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또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기로 했으며, 대한제당도 밀가루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4.6% 내렸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현대차가 포켓몬코리아와 협업해 신규 디스플레이 테마 ‘포켓몬 피카츄 전광석화 테마’ 및 ‘포켓몬 메타몽 월드 테마’를 출시한다.

‘피카츄가 길안내’...현대차, 포켓몬 테마 출시

현대자동차가 포켓몬코리아와 협업해 비게이션 운행 정보, 시동을 걸고 끝 때 차량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신규 디스플레이 테마 2종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테마는 ‘포켓몬 피카츄 전광석화’와 ‘포켓몬 메타몽 월드’다. 고객들은 포켓몬 디자인이 적용된 ccNC 인포테인먼트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의 색상과 그래픽, 내

비게이션 운행 정보, 시동을 걸고 끝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이동의 여정을 몰입감 있는 감성과 스토리텔링을 즐길 수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차량 디스플레이로 구현되는 포켓몬은 부모와 자녀 사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성적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포켓몬스터 테마는 마이현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표 차량 등록하고 현대차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차량은 디올 뉴 팔리세이드, 아이오닉 9, 디올 뉴 넥소, 더 뉴 아이오닉 6, 2026 쏘나타 디엡티, 더 뉴 스타리아로 추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 차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기 기자